



월드컵 퍼스트 히스토리 ①



제1회 월드컵 결승전에서 숙적 아르헨티나를 4-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우루과이 선수들이 서로를 일싸안고 기뻐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남미서 열린 초대 월드컵 유럽 “너무 멀어” 보이콧

제1회 우루과이월드컵 13개국만 참가

1904년 5월 21일 파리에서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7개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을 결성했다. FIFA는 1906년 자신들이 주관하는 첫 국제대회를 개최했지만 흥행이 실패했다. 그 바람에 초대 FIFA 회장이었던 프랑스의 로베르 게랭이 물러났다.

독자적인 국제 축구대회의 탄생을 원했던 FIFA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잦은 마찰을 겪은 끝에 마침내 월드컵을 출범시켰다. 1928년 5월 28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FIFA 총회와 실행이사회에서 결정했다.

가장 열정적으로 월드컵 탄생을 기여한 사람은 3대 FIFA 회장인 프랑스의 줄 리메였다. 이제 남은 중요한 결정사항은 개최지였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의 4개국, 남미의 우루과이가 개최신청을 했다. FIFA의 중심축이었던 유럽의 국가들은 유럽개최를 원했다. 이탈리아의 지지를 선언하고 유럽의 3개 나라가 후보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FIFA의 생각은 달랐다. 우루과이는 당시 최고의 축구강국이었다.1924년, 1928년 올림픽에서 2연패를 했다. 게다가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월드컵을 개최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결국 제1회 대회의 개최권은 FIFA의 뜻대로 났다. 이 같은 결정에 유럽 국가들이 반발했다.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헝가리, 이탈리아는 대회 불참을 선언했다. 그때만 해도 유럽에서 남미까지는 배로 이동하는데 보름 이상이 걸리는 힘든 여정이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 스위스는 원정부담을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다. FIFA는 다급했다. 참가팀의 원정비용, 숙박비 지원까지 약속했다. FIFA가 월드컵 참가국들에게 엄청난 상금과 대회준비 비용을 주는 전통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결국 제1회 월드컵은 13개 나라만 참가한 가운데 1930년 7월 13일부터 30일까지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렸다. <계속>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최현길의 스포츠에세이 | 한국대표팀 최연소 등번호 10번 이승우의 활약을 기대하며...

홍명보·이동국처럼... ‘막내의 반란’ 부탁해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 〈1998년 프랑스월드컵〉

1990년 홍명보 발탁 축구계 우러
패스 정확...월드컵 4회 연속 출전
1998년 이동국 중거리 슛 존재감
이승우, 특유의 근성과 투지 기대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을 앞두고 주전 스위퍼 조민국이 부상당한 한국대표팀의 수비진은 크게 흔들렸다. 이회택 감독의 고민이 깊었다. 그 때 꺼낸 카드가 홍명보(고려대 4학년)다. 전격적인 발탁에 축구계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그 우려가 불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홍명보는 대표팀에 합류하자마자 정확한 패스와 과감한 태클 등으로 믿음을 샀다. 당시 이회택 감독은 “홍명보를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 내보낼 스위퍼 재목으로 생각해 뽑았지만 놀라운 기량향상을 보여 확실한 주전으로 떠올랐다”고 했다. 무명의 홍명보는 뜻밖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탈리아월드컵 조별 예선 3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었다. 이후 2002년까지 4회 연속 월드컵 무대를 밟으며 한국축구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1998년 프랑스월드컵에서 깜짝 발탁된 유망주는 19세의 이동국이었다. 차범근 감독은 포철공고를 졸업하고 포항에 입단한 루키 이동국을 엔트리에 포함시켰다. 가능성 있는 어린 선수에게 큰 무대를 경험하게 해줄 요량이었다. 네덜란드전 0-5 완패와 감독 경질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동국이라는 희망의 싹을 틔운 건 큰 수확이었다. 그가 뛴 시간은 10여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강렬했다. 그는 두려움 없는 중거리 슛 방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렸다.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로 성장한 그는 지금도 K리그를 누비며 최다 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깜짝 발탁이라고 하기엔 기량이 너무 뛰 어났던 2006년의 박주영, 2010년의 기성용, 2014년의 손흥민도 어린 나이에 월드컵 무대를 경험하면서 한 뼘 더 성장했다. 이들은 타고난 자질에 월드컵의 경험이 더해지면서 한국축구의 에이스로 우뚝 설 수 있었다.

감독이 신예를 전격 발탁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어린 선수의 도전 정신이 팀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세대교체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의 일환이다. 현재의 대표팀이 아니라 미래의 대표팀을 위해



러시아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월드컵대표팀 역사상 최연소 등번호 10번의 주인공이 된 이승우. 대표팀 막내의 무한반란은 한국축구에 많은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한다. 5월 28일 벌어진 온두라스와의 평가전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는 이승우. 대구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서라도 이런 발탁은 바람직하다.

2018 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도 깜짝 승선이 이뤄졌다. 이승우(20·베르나)다. FC 바르셀로나 유스팀 출신으로 꿈을 키워 온

그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를 통해 성인 무대를 밟았다. 시즌 초반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막판에 골을 넣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당한 주전 스위퍼 조민국을 대신해 전격 발탁된 홍명보(가운데)가 팀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월드컵 4개 대회 연속출전 대기록의 시작이었다. 스포츠동아 DB

트리에 들기엔 너무 어렵고, 경험이 부족했다.

하지만 엔트리 발표를 코앞에 두고 주전들이 줄 부상으로 낙마하자 대안으로 떠오른 게 이승우다. A매치 경험이 전혀 없던 그의 발탁은 큰 화제가 됐다. 신태용 감독은 “체격이 큰 상대국 수비진의 뒷공간을 민첩하게 파고들며 파울을 얻어낼 능력을 갖췄다”며 선발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승우의 발탁은 잡된 결정이다. 일대일 돌파와 순간 스피드, 투쟁심 등 그를 발탁한 이유를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체구는 작지만(170cm, 60kg) 상대와의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특유의 근성은 칭찬 받을만하다. 그 과감성이 선배들을 자극시키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승우의 등번호는 10번이다. 에이스의 상징이다. 2014년에는 박주영이 달았다. 엔트리에 든 것만도 사건에 가까운데, 거기다 주축 공격수의 배번을 부여받은 건 신태용 감독의 기대가 얼마나 큰 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승우도 죽기 살기로 뛰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욕심보다는 팀플레이를 다짐했다. 아무진 코멘트들이다.

월드컵은 새로운 별들의 경연장이다. 지는 별을 뒤로 하고 뜨는 별이 각광 받는 무대다. 어쩌면 톡톡 튀는 이승우에게 가장 어울리는 무대일 지도 모르겠다. 이제 천금같은 기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건 이승우의 몫이다. 겁 없이 덤벼드는 막내의 반란을 기대해본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 hg2@donga.com·체육학 박사

공식 주제가 ‘Live It Up’...정열적인 라틴 팝과 신나는 응원을!

자바브니 월드컵

※‘자바브니’는 ‘즐거움’, ‘재미있는’, ‘우스운’이라는 뜻을 지닌 러시아어입니다.

니키 잼·윌 스미스 등 뮤지션 참여
뮤비엔 축구스타 호나우지뉴 등장

잔치에는 음악을 빼놓을 수 없는 법이다. 지구촌이 열광하는 월드컵에서도 마찬가지다. 월드컵의 들뜬 기운과 열기를 전 세계로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 바로 음악이다. 2018러시아월드컵 개막에 앞서서도 공식 주제가가 공개됐다. 이번에는 라틴 팝가수 니키 잼과 미국의 세계적 배우이자 래퍼인 윌 스미스, 코소보 출신 신예 싱어송라이터 에라 이스트레피가 참여한 ‘Live It Up’이다. 우리말로로는 ‘신나게 살자’, ‘인생을 즐기자’라는 뜻을 지닌 제목의 노래로, 뮤직비디오에는 브라질의 은퇴한 축구스타 호나우지뉴가 등장한다. 라틴 팝의 열정적 선율이 넘쳐나는 곡이다.

월드컵 주제의 역사는 1962년 칠레월드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칠레 록밴드 로스 램블러스의 ‘El Rock del Mundial’이 첫 테이프를 끊었다. 그 뒤로 수많은 세계적 가수들과 음악가들이 월드컵 주제가에 손을 댔다. 우리 기억에 가장 선명한, 가장 사랑받았던 곡들로는 1994년 미국월드컵의 ‘We Are The Champion’과 1998년 프랑스월드컵의 ‘The Cup Of Life’를 꼽을 수 있다.

‘We Are The Champion’은 세계적 록밴드 퀸(Queen)이 1977년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이미 큰 명성을 얻은 곡이지만, 미국월드컵 때 다시 주제가로 사용됐다. 비단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주요 스포츠 이벤트 때면 요즘도 어김없이 들을 수 있는 친숙한 곡이다. ‘The Cup Of Life’는 푸에르토리코 태생의 라틴 팝스타 리키 마틴이 불렀다. 스페인어 제목은 ‘La Copa De La Vida’다. 이 당시만 해도 마틴은 라이징 스타 정도였으나, 여세를 몰아 이듬해 발표한 ‘Livin’La Vida Loca’를 통해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했다. 마틴은 프랑스월드컵 기



2018러시아월드컵의 공식주제가 Live It Up. 라틴 팝가수 니키 잼, 미국의 세계적 배우이자 래퍼 윌 스미스, 코소보 출신 싱어송라이터 에라 이스트레피가 참여했다. 사진제공 | 소니뮤직

간 중 짬을 내 한국을 찾아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는 2002년 한·일월드컵 때는 미국 여가수 아나스타샤의 ‘Boom’이 주제가였다. 안타깝게도 이 노래는 제목만큼의 ‘봄’을 일으키진 못했다. 그 대신 그리스 태생의 영화

음악가 반젤리스가 작곡한 공식 찬가 ‘Ant hem’이 오래도록 세계인의 귓전을 때렸다. 반젤리스는 SF 영화의 바이블로 통하는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의 사운드트랙을 담당한 세계적 거장이었기에 기대가 컸는데, 그에 걸맞은 명곡으로 찬사를 받았다.

주제가와 한축을 이루는 찬가는 1978년 아르헨티나월드컵 때 처음 등장했다.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지휘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한 ‘El Mundial’이 시초다. 공식 주제가와 찬가의 형태로 월드컵 송이 구분돼 정착되기 시작한 계기다.

최근 3개 대회의 주제가만 살펴보면 2006년 독일월드컵 때는 일 디보와 토니 브랙스틴이 함께한 ‘The Time Of Our Lives’, 2010년 남아공월드컵 때는 샤키라와 프레슬리그라운드가 공동으로 참여한 ‘Waka Waka’, 2014년 브라질월드컵 때는 풋볼과 체니퍼 로페스 등이 함께 부른 ‘We Are One(Ola Ola)’이 발표됐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